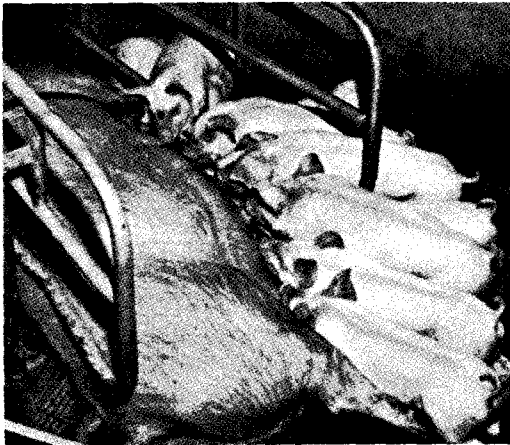


돼지전염성 위장염의 발생과 예방

권 창 희

가축위생연구소



195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돼지전염성 위장염은 그후 매년 전국에 발생되어 양돈가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금년들어와서는 이병은 충청남의 일부지역을 비롯하여 전국 여기저기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번식양돈을 주로하는 양돈가는 이병의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병은 연중 발생되나 주로 추운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특히 봄에 생산되는 자돈에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1. 돼지전염성 위장염이란 어떠한 병인가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급성소화기 전염

병으로서 구토, 수양성설사, 탈수가 특징이며 연령의 관계없이 모든 돼지에 감염발병 되지만 특히 새끼돼지는 증상이 심하고 폐사율이 높다.

2. 발생시기

주로 추운 계절은 12월에서 다음해 4월 사이에 많이 발생되며, 한우리에 이병이 발생하면 3~4주간에 그 우리 모든 돼지가 감염되고 폐사되거나 회복 종식되고 그후 당분간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이병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돼지에서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배설하는 보독돼지로 인해 장기간 계속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3. 전파되는 경로

발생되는 돼지와 같이있는 돼지는 병돈돼지의 분에서 배설한 병원체에 의해 빠른 속도로 전염된다. 전염경로는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나 물을 먹어서 걸리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공기에 의해서도 전파된다.

4. 주요증상

10일령 이내의 새끼돼지가 이병에 걸리면 24시간 이내에 구토와 심한 설사를 한다. 설사는 누른색을 띄우고 몸에 수분이 빠져서 뼈뺀말라

보이며 체중이 줄고 2~5일 안에 죽게 된다. 이병에 걸린 돼지는 나이가 어릴수록 죽는율이 높고 4주이후의 돼지는 죽지않고 회복하나 발육이 늦어지고 생후 80일경에는 건강한 돼지에 비해 체중이 훨씬 모자라게 된다.

돼지의 일령별 감염율 및 폐사율

자돈일령	조사두수	감염율(%)	폐사율(%)
1 - 5	203	100	90
6 - 10	272	100	78
11-20	573	100	49
21-40	418	100	21

5. 예방 방법

이병이 발생되면 방역이 매우 곤란하다.

돈사의 소독, 위생적 조치도 효과가 없다. 따라서 이병의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즉 출입자는 신발과 손을 소독하게하고, 돼지 수집상의 출입을 금지하고, 돼지의 구입도 시중에서 하지말고 이병이 없었던 양돈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임신된 모돈에 예방주사를 하여 면역시키면 이 돼지의 젖을 먹는 새끼 돼지는 젖을 먹는동안(출산후부터 약 2주간) 이병의 발생이 예방된다. 임신 모돈에 대한 예방주사는 분만전 40일경에 1차로 주사하고, 분만 약14일 전에 2차로 2회 주사한다.

6. 치료

약제에 의한 치료는 되지 않는다. 다만 설파제 또는 항생제 등 대장균 등에 효과가 있는 약제 사용은 2주령 이상의 돼지의 회복기를 빠르게 할수는 있다.

돼지전염성 위장염과 대장균 설사와의 감별

돼지전염성 위장염	대장균 설사
전염이 빠르고 증식도 빠르다.	특정 돼지우리에 발생, 장기간 지속한다.
발병율과 폐사율이 높다. 어미돼지도 발병한다.	발병율, 폐사율이 낮다. 어미돼지는 발병하지 않는다.